

후원금 안내면서 '공짜표' 만 좋아하니 ...

해제위기 '니르바나' 통해 불교계 문화 마인드

불교계 유일의 서양음악 오케스트라인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이하 니르바나)가 해체 위기에 몰렸다. 창립 이후 7년 간 적자를 뒤집어쓰면서 용케도 버텨온 니르바나가 최근 정기연주회를 회향하면서 적자의 무게에 눌려 희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에서 몇 안 되는 전문적인 예술공연단체를 파국으로 몰아간 큰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누적된 재정난의 영향도 컸지만,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하면 결국은 불교계의 부실한 문화 마인드로 귀결된다. 니르바나의 끝은 문제점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전문가들은 "불교계도 이제 이웃종교와 마찬가지로 예술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불교계가 '예술경영'의 당위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유를 니르바나의 사례를 통해 점검해 본다.

▽역대 빛에 '악' 소리 나는 연습실

변변한 후원 단체 하나 없이 7년 동안 정기음악회 등을 꾸준히 이어온 니르바나에는 적자만 남았다. 니르바나측에 따르면 창단 이후 니르바나가 쌓아온 빚은 무려 7억원에 이른다. 물론 강형진 단장이 사재를 털어 쏟아부은 돈은 제외한 액수다. 현재 강 단장의 집은 물론이고 20여 평의 사무실도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 막을 길이 없다. 출연료와 대관료 등 행사관련 비용의 합계가 표를 팔아 얻은 수익금을 언제나 넘어섰기 때문이다. 얼마 안 되는 후원금은 매번 필수 지출금으로 충당됐다.

돈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최근 제7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니르바나는 연습실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결국 어렵사리 구한 봉은사 법당에서 악기 몇 번 맞추는 것으로 연습을 끝냈다. 50여 명이 내는 악기 소리는 천정이 낮은 법당 안에서 비범함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번 무대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인 '님밧이' 등의 창작명상곡 등은 검증과정도 거치지 못한 채 생으로 무대에 올랐다. 곡을 내놓은 작곡가들은 초조함 때문에 무대 뒤편에서 줄담배를 태워야 했다.

변변한 연습실 없어 떠돌이 신세 못면해 중단·사찰의 인식 부족, 행사 초청 전문 획기적 콘텐츠개발로 '투자' 유포해야



삽화=박구원

▽어쩌다 여기까지 왔다

지역주민은 물론 경기도에서까지 원정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경우 1년에 10억 이상의 지원금이 따라 붙는다. 이에 반해 니르바나는 지난 해 사찰 한 군데에서 200만원의 후원을 받은 것이 전부다. 개별 후원금은 무에 가깝다. 7년 동안 1만원 후원계좌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이는 단 3명에 불과하다. 번 것 이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적인 압박이 니르바나의 불씨를 꺼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강 단장은 "중단이나 사찰에서 우리를 초청할 때 마치 흥을 돋우는 '광대' 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전문 연주집단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들에게 불교 오케스트라의 활용 방안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찰에서는 "잠깐간다는 외부 오케스트라를 섭외해 몇몇 가수들의 고정 리사이틀 무대를 마련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같은 사실을 입증하듯 올 한해 봉행사에서 니르바나가 초청된 경우는 단 한 차례 뿐이었다.

이처럼 불교계의 문화포교 마인드가 부족하다보니 니르바나는 불교 안에서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었다. 니르바나측으로부터 연주회 연습 공간 대여를 부탁받은 한 불교단체의 경우 "법당 마루에 흙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 사유를 밝혔을 정도다. 이 같은 현실이 매 연주회마다 반복되면서 니르바나는 더 이상 존립할 이유도 없고 존립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투자만 있을 뿐 수익은 없다는 생각 버려야

최근 개신교와 천주교 등 이웃종교는 '예술경영' 기법을 적극 도입해 전문적인 예술공연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단일 교회인 명성교회 내에 오케스트라가 6개나 활동하고 있을 정도다. 불교계에도 이 같은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단순히 예술단체만을 육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문화포교의 토양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니르바나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불교문화를 활용하려는 마인드의 변화다.

축제기획사 '불무' 김유신 대표는 "문화예술 분야에는 투자만 있을 뿐 수익은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잘 만들어진 불교 문화 콘텐츠는 포교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지속적인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난타, 뮤지컬 명성왕후 등의 성공사례가 성철 스님의 일생을 다룬 오페라에서 재현된다면 그 영향은 실로 지대할 수 있다. 이때 불교 문화 콘텐츠도 새롭게 생산될 수 있고, 니르바나 등의 전문 공연단체는 이것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불교 예술단체 내부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문화포교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려면 주먹구구식 운영의 고리를 끊고 사찰의 막연한 지원에 기대려는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니르바나의 경우 단장이 홀로 내부 경영과 외부 홍보 등의 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내부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발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이 메세나(Mecenas: 문화 예술 등에 대한 기업의 후원과 지원 정책으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듯, 불교 예술단체 등도 종단 및 사찰의 지원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삼보 통해 불교의 근본 재조명

■ 동국대학교 개교 99주년 기념 특별전



화엄경석

동국대학교 박물관은 개교 99주년을 맞아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를 주제로 특별전을 6월 10일까지 연다.

삼보를 통해 불교의 근본을 재조명하고자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불상과 불화, 불교의식구, 경전 등의 박물관 소장 불교문화재 40여점이 진열대에 오른다. 전시되는 작품으로는 석가설법도, 금동여래입상 등

불보를 상징하는 불상과 불화를 비롯해 화엄경석, 상지니묘법연화경, 금광명회승왕경 등 법보를 나타내는 경석·사경·경전 등의 문화재도 공개된다. 또한 불교의식구, 승사리장엄구, 영정비문 등 승보를 조명할 수 있는 유물도 접할 수 있다.



석가설법도, 1777년.

특히 이번엔 출품되는 석가설법도와 석씨원류 등은 그간 일반에 거의 공개되지 않은 작품이라 눈길을 끈다. 6월 10일까지. (02)2260-3462

가족·설화 단순 명쾌하게 표현

■ 이만익 초대전

'월인천강' 등 민화적인 느낌의 종교회화를 즐겨 그린 이만익 화백 초대전이 6월 30일까지 서초동 세오갤러리에서 열린다. 세오 2주년 개관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가족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도와 전통적인 설화 그리고 역사화 등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이 화백의 그림 40여점이 선보인다. 이 화백은 절제된 색채와 형태로 우리나라의 한과 기원이 담긴 얼굴을 그리며 민족의 삶과 역사를 재조명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 '숲속의 아이들' 등 아이들의 열정과 흥을 담은 그림, '명성황후' '청산별곡' 등 역사적인 주제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그려낸 그림 등을 만날 수 있다. '까치와 호랑이' 등 설화를 이만익 특유의



이만익의 '새벽'



절제된 색채와 형태로 가족애를 표현한 '모자도'

유머로 표현한 작품도 다수 출품됐다. 세오갤러리 아트디렉터 김미진씨는 "화가의 삶과 화업의 연륜에서 배어나온 기품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522-5618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

CD 성명학



저자 : 소리 이부길
도서형태 : 신국판/ 391쪽/ 고급양장
가격 : CD포함 값 20,000원.

동양의 지혜와 컴퓨터의 만남!!
복잡한 수리와 음양오행학이 얽힌
성명학의 진수를 CD로 맞는다!!

이름의 피침은 민체게 깊은 영향을 준다. 이름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성명학이 어려워 제대로 된 이름을 구별 못했던 어려움을 문명의 총아 컴퓨터가 해결하였다. 좋은 소리는 귀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소리의 울림은 오정육부를 울리고 사람의 모든 감각기관을 울려서 화평하게 하기도 하고 천운에 떨기도 한다. 옛날 이름은 휘(號)라고 하여 부르지 못하게 하였지만, 요즘은 대통령의 이름도 부르는 세상이 되었다. 그만큼 발음의 영향이 더욱 커진 셈이다.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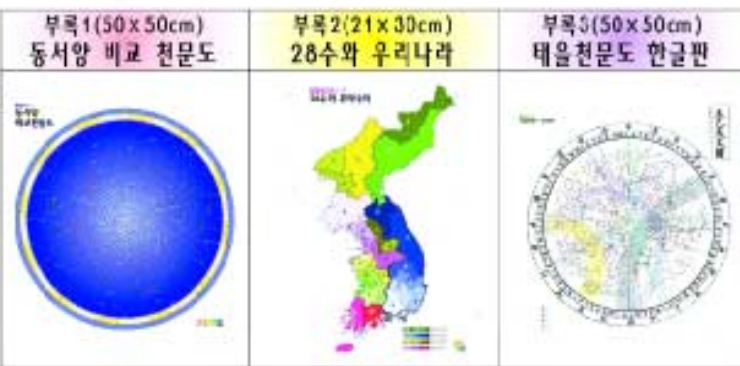
성명학을 배울 필요없이 이름을 짓고 감정할 수 있다.

태을천문도 보급판 출시



고급형(120,000원) / 보급판(60,000원)
천상열차분야지도, 태을천문도, 28수를 우리나라에 배당한 지도, 휴대용 동서양 비교천문도, 태을천문도 한글판, 해설서.
저자: 윤상철. 2005년 5월 출시

고구려시대의 천문도를 조선시대 태조의 명으로 권근이 수정보완한 「천상열차분야지도」 세월의 풍우에 서물려 갈아보기 힘들게 마모된 것을 고증을 통해 수정 보완하고 서예가 김홍구님의 필적으로 다시 채색하였으며, 안의 내용은 해설서에 도면과 더불어 번역하였다.



하락리수 CD



※ 가격 300,000원
총괄: 윤상철, 2004년 3월 중보.
생년월일시를 입력 하지마지 서주 칸지와 산천운 후천운을 즉시 확인함은 물론 12조건에 따른 길흉을 클릭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생수에 이어 대상은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세세히 볼 수 있고, 점령결과 주역점, 궁합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세표입니다.

주역신기묘산

편저자 : 건원 윤상철
도서형태 : 신국판/ 391쪽/ 비닐커버
가격 : 15,000원. 5월 15일 출간예정

주역을 활용한 점법의 일종으로, 점치는 방법을 설명하고, 각 호마다 개괄적인 설명과 더불어 17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단답형 풀이를 하였다.

